

#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5월 3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와 아내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김 영 섭 -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둘째 형이 박수무당이 될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교회는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난생 처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과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고 교회당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닐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1967년에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1983년에 직장 관계로 수원시로 이사하였습니다. 마침 옆 집에 사시던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님이 아내를 전도하였고, 그 다음 해에 아내의 전도로 저도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간 날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곧바로 남성봉사연합회에 들어가서 봉사하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트기 전에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나눠 줄 주보를 접는 일부터 시작하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따라서 오전에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또 오후에는 1시에배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갈 때 몸이 피곤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시 큰 제약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내 동호인 모임인 축구부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주일에 시합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게 되고 점차 주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고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온갖 좋다는 것을 다 해봐도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기도성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번개가 내리치는 듯하더니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찢릿하였다가 다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허리의 통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때까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후 예배를 사모하며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더 집중하여 경청하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저에게 새롭게 신앙생활의 각오와 결심을 하고 적극 실천하도록 저를 감화시키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특히 십일조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성령세례를 받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께 쓰임 받는 기쁨,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충만하여 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 1월 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 그치지 않아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한 달 넘게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축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주므로 상급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얼굴 전체에 곰팡이균이 가득 퍼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수술을 받으려니 86세 고령에다 심장에 스텐트가 5개나 삽입되어 있어 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약물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콩팥에 무리가 가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장 검사와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수술 날짜를 정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구장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이후 교회에서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 합심하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 하루 전에 입원하여 CT를 찍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주치의 선생님이 보자고 하여 갔더니 먼저 찍은 CT 사진과 어제 찍은 CT 사진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어찌된 일인지 그 사이에 곰팡이균이 다 사라져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면서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 또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굳세어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내가 주부습진으로 인해 손이 터지고 갈라지며 진물이 나는 증상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아내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소원과 열망을 갖게 해주셨고, 아내는 곧 순종하여 성미실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랜 시간 아내를 괴롭혔던 습진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내는 만성 두통으로 10년 넘게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을 기도를 해주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두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혀 통증(구강작열감)으로 인해 고생하던 아내가 주일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아픈 중에 봉사하는 성미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예배 시간에 입이 열리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4년에 집사 안수를 받은 후, 성령께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장로 직분을 사모하게 하셔서 3년의 피택장로 과정을 거쳐 2003년에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성가대에서 24년간 봉사하고 전도심방부에서 6년 동안 봉사하였으며, 지금 봉사부 자문위원으로서 부서와 부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연약할 때 치료해 주시고, 곤고할 때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통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3권 (9단원) 성도의 풍성한 삶

(제52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 본문 : 요한복음 8:31-36
- 요절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 찬송 : 202장(새찬송가 268장), 206장(새찬송가 284장)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만큼 고귀한 것은 달리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주가 넉넉하더라도 자유를 제한받는 상태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로써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각오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걸쳐 슬한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인 제반 자유를 폭넓게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증오와 탐욕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데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의 조상들은 앗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대꾸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비록 이민족의 지배 아래 있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결코 남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란, 영적인 자유로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을 지배해 왔던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였고(히 9:26),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였고(골 2:14~15),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놓여남을 주셨으며(히 2:15),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으며(요일 3:8),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요 8:35).

2.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까닭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지난날과

같이 옛 주인에게 매여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는 율법주의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1)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규정대로 식물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등의 교묘한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5~6)고 하심으로, 날과 식물에 대한 율법의 속박에서 성도들이 자유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 엿보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간파하고 믿는 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즐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성도는 사랑을 따라 자유를 행사하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나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24)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로서 도처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육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매우 과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우상은 헛것이라는 지식에 근거하여 스스로없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형제들이 보게 될 때에 실족하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 8:13)고 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사용할 때 먼저 연약한 형제들을 살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억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직도 자유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